



일광정사 '차와 좋은 만남' 전

봄바람 타고 온 동남아茶香



최근 다양한 종류의 차들이 수입되면서 중국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3월 24일부터 30일까지 서울 관훈동 인사아트센터에서 열린 '차와 좋은 만남 전'은 이처럼 중국차에 대한 정보에 목말라했던 차인들을 위한 행사였다. 24일 열린 개막식에는 선서화 전문가 일장 스님과 불교TV 회장 성우 스님, 한국차인연합회 박관홍 회장을 비롯한 100여 명이 참석했다.

중국차전문점 일광정사(대표 여규영)가 마련한 이번 행사에서는 중국 차사호를 비

중국 차사호 등 다기 100여점 전시 각국 차문화, 정보 교류의 장 마련

롯한 다기 100여 점과 대만 작가 반종성의 석다반(石茶盤)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또 일주일 간의 행사기간 동안 중국과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대만 등 동남아 국가들의 독특한 차 문화 소개와 '차와 꽃', '차와 그림'을 주제로 한 다양한 강연회가 마련됐다. 이번 전시 및 강연회에는 500여 명이 관람객이 찾아 떠스한 봄기운 아래 차 문화 향연을 즐겼다.

이번 행사에서 진행된 다양한 강연회 중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차 문화를 소개한다.



말레이시아 '자승다예중심'을 이끄는 소혜연씨가 찻잔 잡는 법을 소개하고 있다.

● 말레이시아

18세기 영국의 식민지였던 말레이시아는 현재 홍차 문화가 널리 퍼져 있다. 전체 인구의 45% 인구가 45%가 홍차 즐겨 찻잔 잡는 세손가락 사용

를 차지하는 말레이인들은 홍차에 우유를 섞은 밀크티로 하루를 시작할 만큼 홍차를 즐겨 마신다. 3월 25일 진행된 '말레이시아 차 문화' 강연은 말레이시아 플라툰 프르에서 다예관 '자승다예중심'을 이끌고 있는 소혜연(蕭慧嫻) 씨가 맡았다.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다법은 소개한 소씨는 "말레이시아 다법의 가장 큰 특징은 간편함"이라고 말한다. 이 다법은 중국 북경성 차 문화의 영향을 받아 생활 속에서 쉽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변형된 것이다. 찻잔을 잡을 때는 오른손 세 손가락만을 사용한다. 찻잔의 남북 방향 입구를 엄지와 검지로 잡은 뒤 가운데 손가락으로 찻잔 밑을 받쳐 잔을 움직인다. 마실 때는 손목을 90도로 꺾어 마시면 입술을 대는 부분에 손이 닿지 않는다. 손잡 찻잔에 차를 따를 때는 신분의 높낮이에 상관없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따르고, 찻잔은 보통 짝수로 준비해 둔다.

● 싱가포르

말레이반도 남쪽 끝에 자리 잡은 싱가포르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와 공존한다. 차 문화에서도 이러한 특징은 뚜렷이 드러나, 싱가포르에는 수많은 차 문화가 존재한다. 전체 인구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인들이 즐기는 것은 진한 홍차의 일종인 공부차(功夫茶), 화려한 다예 기술 대신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는 차 문화가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또 중국 북경성의 우롱차와 운남성의 보이차도 즐겨 마신다. 3월26일 '싱가포르 차문화'를 강의한 싱가포르 국제무차협회 이사장(李自強) 회장은 "다양한 차 문화를 받아들이는 싱가포르인들의 특징처럼 찻자리에서도 대접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功夫, 우롱, 보이차 성행 특별한 격식 없이 일상화

● 싱가포르

한 차 문화를 받아들이는 싱가포르인들의 특징처럼 찻자리에서도 대접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功夫, 우롱, 보이차 성행 특별한 격식 없이 일상화

모두 편안히 차를 즐기는 분위기를 중시한다"며 "때문에 차를 마실 때 찻잔을 한손으로 쥐고 마시는 등 특별한 격식이나 예절은 없으며, 손님과 주인에게 편안하게 즐길 수 있으면 된다"고 말한다. 찻잔은 보통 6-8개를 사용하며 한 번 마신 잔은 바로 씻어서 다시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글=여수영 기자 사진=박재원 기자



싱가포르 국제문화차협회 이사장 최정익이 다도시연을 보이고 있다.

우리 사찰 차 모임

관오사 차문화연구회

"자비실천 없는 교육 있을수 없다"



3월30일 대구 관오사 다실에서 열린 다도시업 모습. 사진=배지선 기자

지난 3월 30일, 대구시 남구 이천동 관오사 2층 다실에 단정한 한복 차림의 회원들이 매주 화요일 진행되는 다도시업을 위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다.

2000년 3월 문을 연 관오사(주지 지도) 차문화연구회는 부처님의 자비실천을 우선으로 하는 차인들의 모임. 신도들의 봉사활동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으로 지도 스님이 서울에서 지도교수를 초빙해 다도시업의 열면서 시작됐다.

관오사 차문화 연구회는 예절이나 행다 보다는 차에 대한 역사부터 시대

를 이해한다는 것은 선(禪)을 한마디에 알 수 없는 것처럼 끝이 없다"는 것이다. 이곳에 모인 회원들은 차를 접한 지 10년도 훌쩍 넘는 전문 차인들이 많다. 차에 매료되어 전국을 다니며 차에 대한 다양한 수업을 받아 왔던 그들이 이곳에 다시 모인 데는 까닭이 있다. 이론적 지식 습득을 뛰어넘어 차의 기운을 온 몸과 마음으로 체감하게 됐다는 것이다. 관오사 차문화 연구회는 예절이나 행다 보다는 차에 대한 역사부터 시대

회원, 봉사활동 기본 조건

매년 다도시업 차공양 행사

연구, 재현 통한 차기운 체험

관오사 차문화 연구회는 예절이나 행다 보다는 차에 대한 역사부터 시대

'Tea & People' 다도구 기획전



3월24일 열린 '다도구 기획전' 행사장 모습.

월간 <Tea & People>이 지난 3월 24일부터 30일까지 서울 백상기념관에서 '제1회 다도구 특별 기획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03년 창간호부터 올해 2월 까지 월간 <Tea & People>에 소개된 문경요 천한봉 대표를 비롯해 목전요 김태환 대표, 단국대 도예학과 박종훈 교수, 예심목공예 권수경 대표 등 18명의 차문화 공예가가 한자리에 모인 자리였다. 24일 열린 개막식에는 작품을 전시한 차문화 공예가들을 비롯해 신회호 월간 <Tea & People> 발행인,

김동현 다도구 특별기획전 준비위원장 등 100여 명의 차인들이 참석했다.

김동현 위원장은 "차문화는 도자공예, 목공예, 금속공예, 직물공예 등 각 분야의 문화가 어우러지는 종합 생활미학이다"며 "다양한 다도구들을 통해 아름다운 차 생활을 즐기는 안목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천한봉 대표도 축사에서 "전시회에 출품한 작품이 많이 선보여 가슴이 뿌듯하다"며 "우리 차도구 문화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영 기자

보천다회 수료식, 차발견학

경북 구미 보천사주지 법진 보천다회는 4월 13일 오전 11시 제3회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헌다 행사와 함께 수강생들의 다법 발표와 수료증 전달 등이 진행됐다.

한편 보천다회는 5월 3일 개최하는 '제1회 보성 차발견학 및 향토 음식기행'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054)474-3592

인터뷰

장영숙(기회장)



베푸는 마음 가졌다면 누구나 가능

"차를 느낄 수 있는 감성이 열려 있는 분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지요." 1기 장영숙 회장은 관오사 차문화연구회가 차를 알고, 베풀을 실천하려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임을 강조했다.

"차의 힘으로 우리가 이렇게 만났듯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돌아갈 것"이라는 장 회장은 "차문화연구회가 나아가갈 목표를 특별히 정하기보다는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맡은바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지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배지선 기자

참된 말씀을 바로 펴는 BBS 불교방송

4월 19일 봄철 프로그램 개편

BBS 대표 · 특성화 프로그램

차한잔의 선율

월-일 [09:05 ~ 10:00]
진명스님 진행

이른 아침 맑은 산사의 향취를 클래식 소품에 실어 청취자에게 전달



BBS신행상담실

월-토 [10:05 ~ 10:55]
성열 · 지득 · 성정스님 진행

교리와 신행생활에 대한 궁금한 점들 스님의 상담을 통해 풀어나가는 시간



행복스튜디오 구효서입니다

월-일 [11:10 ~ 12:00]
소설가 구효서 진행

다양한 문화가 소식, 화제의 인물, 청취자 사연등을 통해 오늘의 삶을 되돌아봄



무명을 밝히고

월-일 [17:10 ~ 18:00]
김상영교수 진행

불교계 주요현안을 진단하고 올바른 방향설정과 불자들의 신행 길잡이가 되는 프로그램



다시듣고 싶은 노래

월-일 [20:05 ~ 21:00]
코메디언 김병조 진행

진행자의 구수한 입담이 어우러진 진행과 노래를 통해 서민들의 정감어린 삶의 모습을 전달



거룩한 만남

매주 금요일 [09:05 ~ 10:00]
도현스님 진행

어려운 이웃과 청취자들에게 진정한 보시정신을 일깨워 나눔의 기쁨을 공유

